

和合, 團結, 미래로



내부결속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면 공동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제화를 향한 발걸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쇄업계 리더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업계 안에서부터 뿔어오르는 경고성발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상황에 이른 듯하다.

어느덧 한해를 역사속으로 떠나보내고 2006년의 새 아침이 밝았다. 인쇄인들은 異口同聲으로 어려운 2005년을 보냈다고 하소연한다. 해마다 연말에는 서울인쇄조합 부회정기총회가 열린다. 2천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인쇄영역에 따라 책자부, 상업인쇄부, 사무용품부, 전산정보부회 등 4개부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많은 수의 인쇄인들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어 이곳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업계실정을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회를 책임지고 있는 간사장의 개회사는 어느 정도 인쇄계 여론을 대변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는 각 부회 간사장들이 개회사에서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에 그치지 않고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보면서 업계 안팎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에 비교적 말수가 적고 주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간사장까지 흥분(?)한 것을 보면 요즘 업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먼저 포문을 연 K간사장은 어려운 인쇄업계 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쇄단체장간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듣기 민망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서로 욕심을 버리고 단결해야 하며 단체장들은 덤핑을 해서 거래질서를 흐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다른 J간사장은 30년 동안 덤핑도 하지 않고 철야작업도 하지 않으면서 뼈빠지게 일해 왔는데 남은 것은 '골병' 뿐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제 인쇄인이 문화인으로 대접 받으려면 인쇄계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제값받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간사장은 단체장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업계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이제는 '네 탓' 보다는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며 화합, 단결, 미래라는 긍정적인 아젠다로 굳게 뭉치자고 강조했다.

K간사장은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인쇄인들이 힘을 합쳐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간사장들의 지적이 문제해결의 결론이라고 꼭 집어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단체장들이 화합해야 하고 덤핑이 근절되어야 업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부분의 인쇄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듯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내부결속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면 공동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제화를 향한 발걸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인쇄업계 리더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업계 안에서부터 뿔어오르는 경고성발언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상황에 이른 듯하다. 어쨌건 답답하고 막힌 문제점들은 발상의 전환으로 과거속으로 다 던져버리고 새해부터는 앞을 향해 묵묵히 전진하는 미래지향적인 '話頭'가 인쇄업계 중심부에 자리잡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오세익 · 편집주간〉